

## 블록체인패러다임과 블록체인거버넌스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블록체인연구센터 박성준 센터장

필자는 1990년대에 사이버패러다임을 역설하면서, 인터넷 세상의 탄생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이버패러다임이란 기존의 종이문서와 사람 중심의 프로세스를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프로세스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리엔지니어링 또는 리스트락처링이란 용어는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이버패러다임으로 인해 사이버세상(인터넷세상)이 탄생하였고 사이버세상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많은 법/제도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하는 주제인 인터넷거버넌스란 인터넷 세상의 핵심 인프라인 인터넷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거버넌스의 화두인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입니다.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란 인터넷의 주소를 관리하는 주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 세상입니다. 저는 사이버패러다임 이후 블록체인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전 세계적 흐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이버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리엔지니어링과 비교하여 블록체인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블록체인리엔지니어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패러다임이란 새로운 컴퓨터이자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을 미래 세상의 핵심인프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가 인터넷진흥정책을 통해 세계 IT 강국이 되듯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하여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세상의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인 인터넷거버넌스 측면에서 블록체인은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주인과 관련한 논의 중에 관련된 이해당사자(각국, 기업, 시민 등) 간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중앙집중적인 관리방식이 아닌 탈중앙화된 P2P 합의 방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탈중앙화된 P2P 합의 방식을 활용하여 인터넷의 관리와 이해당사자간 공정하고 합리적인 합의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논의 중인 인터넷거버넌스 관련하여 블록체인플랫폼을 구축하고 블록체인플랫폼에서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인터넷거버넌스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더 나아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인터넷거버넌스가 아닌 블록체인거버넌스의 시작입니다. 아마도 머지않은 미래(5년 정도)에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이 세상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고, 이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주도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의 장을 조속히 만들었으면 합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인터넷거버넌스 이후의 블록체인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의 중앙집중적인 인터넷과는 근본적인 틀이 바뀌는 탈중앙화된 P2P 방식 네트워크인 블록체인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및 관련 법/제도 등 모든 것 또한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인터넷거버넌스의 토론의 장으로 블록체인플랫폼을 활용하자는 것이며, 인터넷거버넌스 이후의 블록체인거버넌스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